



# EU 친환경 항공유 규제에 K항공 비상

유럽연합(EU)이 최근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을 의무화하는 '리퓨얼EU'(REFuelEU) 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2025년부터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하는데, 기존 항공유보다 최대 5배가량 비싸 항공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정유사가 한곳도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할 실정이다.

글 권준호(파이낸셜뉴스 기자)



## 2025년 친환경 항공유 규제 시행

5월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등은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리퓨얼EU' 법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 사용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그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SAF는 폐식용유, 생활 폐기물, 동물성·식물성 기름 등 친환경 연료로 만든 항공유다.

국내 항공사는 비상이다. SAF가 기존 항공유 대비 2~5배가량 비싼 데다 의무 도입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SAF가 기존 항공유 대비 2~5배 비싸기 때문에 (SAF를 도입하면)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는 소비자 편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에 SAF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아직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국내 항공사는 SAF를 전량 수입해야 하고, 환율뿐만 아니라 항공유 가격 등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정유사는 6개월 정도면 SAF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유력한 방법은 해외 SAF를 수입해서 희석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수요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반년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국내 항공업계 '속수무책'

국내 항공사는 각각의 방식으로 리퓨얼EU 법안에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상 역부족이다. 그나마 앞서 있는 곳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도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6월에는 국내 정유사 HD현대오일뱅크, 지난해에는 글로벌 정유사 쉘과 SAF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SAF 공급이 가능한 해외 공항 출발편에 대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작년 2월부터 국적 항공사 최초로 정기 노선인 파리~인천 구간에 SAF를 사용해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정부, 정유사, 공항 등과 국내외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SAF 사용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월 글로벌 정유사 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SAF 공급망 확보와 국내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나머지 항공사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 운항 효율화 등에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SAF 도입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항공업계는 SAF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높은 가격과 생산시설 미비로 예상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제화가 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까지 항공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무진과 SAF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SAF 도입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연도별 SAF 보급 목표 설정, 이행 결과 보고, 세계 지원, 연구개발, SAF 공급체계 구축 등 관련 제도 도입과 확대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SAF 유통 및 활용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항공업계 ESG 경영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발의했다. 정부 측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권준호(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준호 기자는 국내외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정유 및 에너지 업계의 현황과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